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5. 3.(수) 06:00 < 5.3.(수) 석간 > 배포 2023. 5. 2.(화)

탄소중립을 위해 수소·암모니아 발전은 필수

- 기존 발전설비의 좌초자산화 방지를 위해 2027년까지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조기 상용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박일준 2차관은 5월 3일(수)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전 전력연구원을 방문하여 수소·암모니아 발전에 대한 연구현황과 시설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무탄소 연료인 수소(H_2)와 암모니아(NH_3)를 활용한 수소·암모니아 발전은 기존 석탄발전기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주 연료인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를 일부 또는 전부 대체하는 것으로, 한전 전력연구원은 해당분야의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①초초임계압(USC)급 미분탄 보일러와 ②발전용 순환유동층 보일러에 암모니아를 20% 혼소하는 기술개발 및 실증과제와 ③150MW(F급) 가스터빈과 ④300MW급(H급) 가스터빈에 수소를 50% 혼소하는 기술개발 및 실증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 1월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수소 50% 혼소와 암모니아 20% 혼소 발전을 도입하여 2030년 13.0TWh(수소 6.1TWh, 암모니아 6.9TWh), 2036년 47.4TWh(수소 26.5TWh, 암모니아 20.9TWh)의 수소·암모니아 발전량을 제시하였고, 지난 3월에는 내년 상반기 개설하는 수소발전 입찰시장의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하는 등 수소·암모니아 발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박일준 2차관은 “전환부문의 탄소중립 달성과 기존 발전설비의 좌초자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수소와 암모니아의 혼소와 같은 무탄소 전원을 활용한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면서,

“그간 전력분야에서 전력연구원이 보여준 성과처럼 수소와 암모니아 혼소발전의 2027년 조기 상용화에 앞장서 달라”고 연구원들을 격려했다.

담당 부서	전력정책관실 전력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문양택 (044-203-3880)
		담당자	사무관	이태욱 (044-203-389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